



통권 134 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2. 12. 21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열네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보랏빛 손수건”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이 열네번째를 맞이하며 ‘보랏빛 수건’이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장충체육관에서 오후 6시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가협 어머님들과 회원들은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의 다짐을 하였다. 이 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반미’를, 장충동 민가협 행사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 마음으로 외쳤다.

· 목 · 자 ·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 출소장기수 김동섭 선생님을 찾아서 김현희 편집위원 • 5 /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의 여동생 김근영님을 찾아서 오영순 편집위원 • 9 / 오수강 회원을 만나서 이창희 간사 • 11 / 전 한총련의장 손준혁님께서 보내온 편지 • 14 / 모든 양심수 들께 보내는 편지 최종수 신부 • 15 / 면회기 문숙희 회원 • 18 / 산행기 한수정 회원 • 19 / 회원교육강좌 보고 유선화 회원 • 20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참가기 이용준 회원 • 21 / 특집 박용길 장로님의 방북이야기 • 23 / 나의 삶 나의 일터 - 주권회복의 날 범국민평화대행진 박정범 편집위원 • 25 / ‘회원송년모임’ 보고 • 26 / 시사만화 • 27 / 광고 • 28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9 / 재정보고 • 39 / 회비납부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전송 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oo.or.kr

양심수전원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복권을 다시 촉구한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5돌을 맞아 민가협을 비롯한 58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명단을 청와대에 보내면서 올해안 대통령 대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등 반인권 악법을 개폐하고 여러 가지 질환으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박경순, 김대원, 이창호, 우용해씨등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452회를 맞은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도 양심수 가족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정치수배자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었다.

5년 전 양심수 가족들의 염원은 바로 양심수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었다.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을 없앨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렇게 기대했던 김대중대통령이 이제 임기 두달 반을 남겨놓고 있다. 5년전의 염원은 오늘 목요집회에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되풀이되고 있었다. 약속했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사적 이익이 아닌 공동선을 위해 활동한 이유만으로 감시를 받고 쫓기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제도와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고 있으며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세계인권선언을 지지, 가맹했으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 땅에선 인권개선의 구체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마다 맞는 세계인권선언일은 관행적 연례행사로 끝나고 있었다.

현 정권 5년동안 구속양심수의 절대수에 있어서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나 이른바 문민정권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외세와 분단으로부터의 해방, 억압과 착취구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희망적 전망은 적어도 양심수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에 대한 기대였기에 실망은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현 정권 출범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오늘 2,176명의 양심수가 구속되었으며(2002. 11. 20) 해마다 수 백 명의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쫓기고 있었다. 아직도 감옥엔 96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으며 300여명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이들은 통일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생존권투쟁을 한 이유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3권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힌 채 강제연행, 강압수사, 구속·기소, 유죄판결이란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과 함께 민족과 국가사이의 상호자주권, 생존권 존중정신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두 차례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침략과 살륙과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고 국제인권규약 A, B규약 모두 제1조에 인간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결권은 민족이나 국가에 대입시킬 때 자주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이라고 말할 때 민족 또는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포함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외세의 간섭을 받고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바로 세계인권선언의 특수한 조건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자주와 통일을 말하고 그 실천에 나선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한 이유도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다. 바로 범민련, 한총련,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과 조작음모가 그것이고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조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 행사는 공안대상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현실이 그것이다. 최고학부의 지성인이며 성인인 대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자신의 조직, 단체를 결성한 것조차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총학생회장이나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순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가 적용되어 쫓기거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직권중재제도 같은 노동3권에 배치되고 국제노동기구헌장에 위배되는 제도와 관행으로 노동자들은 불법파업,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따위 이름으로 수배되고 구속되며 손해배상이라며 조합비를 압류하고 있는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1948. 12. 10일 국제연합 제3차총회에서 '인권총회'로 불리며 채택되어 '인류헌법의 전문' 이라 했고 '국제인권장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은 이 땅에서 이처럼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게 되고 있다.

영하 10도로 뚝 떨어진 강추위가 몰아친 명동거리는 성탄축가로 출렁대고 있었다. 성탄 분위기에서 명동성당이 빠질 수는 없는 터이었다. 그래야할 명동성당 들머리에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 강남성모병원등 병원의료노조원들의 농성전막이 그것이었다. 언 땅을 체온으로 녹이며 201일째 농성을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주님의 사랑과 배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모병원에서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못한 채 노조원들은 그 오랜 시간동안 성모병원과 교구청과 교황청을 상대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었다. 병원의료노조원 농성장에는 보건의료

노조 차수련 위원장과 본부 간부들도 함께 하고 있었다. 22일동안 단식농성을 했던 차수련위원장 등 3명은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밖에도 본부간부등 4명에게는 검거령이 내려져 있었다. 병원 당국은 여전히 무노동 무임금에 손해배상이라며 노조원들의 조합비마저 가압류해놓고 있으면서 노조원들에게 무조건 현장복귀를 요청하고 있을 뿐이었다. 국제노동기구헌장에 위배되는 직권중재제도를 악용하며 노동자들의 파업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법파업 혐의로 아직도 성모병원, 경희의료원 등 보건의료노조원 7명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현 정권 5년동안 824명이 구속되었으며 아직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40명이 갇혀 있고 차수련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이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다.

정치수배로 쫓기고 있는 이들은 노동자뿐이 아니다. 한총련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 1998년 제5기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된 뒤 해마다 한총련 의장도 대의원도 활동내용도 바뀌고 있지만 공안당국은 관행적으로 6, 7, 8, 9기 한총련을 잇달아 이적단체 굴레를 씌웠다. 그리고 강령·규약을 개정하고 평화적으로 투명성있게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제10기 한총련마저 김형주의장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로 선고받게 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고 경의선, 동해선이 연결되고 있으며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이북 응원단과 수만명 부산 시민이 한 동포임을 뜨겁게 공유하고 있었지만 이 땅의 공안당국은 시대를 거슬러 수구냉전시대로 달리고 있었다.

홍익대 교정은 언뜻 보기에 평화로워 보였다. 넓은 운동장에서는 영하의 날씨에서도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는 학생이 있었고 캠퍼스 거리거리에는 동아리행사 광고와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풀자는 등 각종 선전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러나 낙엽을 휘몰아가고 있는 매운 바람이 몸 속을 파고드는 차가움처럼 공안당국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수배학생들은 자유분방의 다른 캠퍼스 분위기와는 다르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눈

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많은 한총련 대의원들이 교정에 까지 불법침입한 보안수사대원에게 붙잡혀 갔었다. 10기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 윤경희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교정에 없었다. 지난 5월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등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고 있지만 의장 권한대행 답게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100만 청년학생을 지도하느라 자신의 모교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성혁 2002년 부총학생회장도 자동적으로 한총련 대의원이 되었고 때문에 지난 8월부터 수배상태에 있었다. 교정에만 있으려면 따뜻한 목욕 한 번 못한다. 어머님이 지어주시는 따뜻한 밥 한끼가 그리워지고 있었다. 공안당국은 집으로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러나 어머님은 아드님을 굳게 믿으신다고 한다.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끔 찾아오시기도 한다. 이 어려운 수배조건에서도 한총련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은 대단했다. 2000년 한총련 8기 대의원이었던 당시 서울대 공과대학 김준철 학생회장도 이미 3년째 학교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하루 이틀이 아닌 3년동안 일정한 머물 곳, 밥 먹을 데 없이, 이 추운 겨울 찬물로 머리감고 불안정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교정에만도 2001년 사범대학생회장 김상률, 2002년 공과대학 학생회장 김동하 학생이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려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12/12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2003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대선후보 공개면담 기자회견 자료에는 46개 대학 178명의 한총련 이적규정관련 수배자 현황이 있었다. 이 자료에 서울대 학생 등 명단은 없었다. 수배당하고 있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많게는 6년에서 2002년 수배자까지. 학생지도자들이 손발이 묶여 야만적인 인권모독과 침해를 받아오고 있다. 현 정권 출범 뒤 이제까지(2002. 11. 20) 1036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었고 아직도 6기 한총련 손준혁의장과 10기 김형주의장등 39명이 감혀 있다.

이제 더 이상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거나 정치수배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야만행위는 없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기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시대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중유공급중단, 핵선제공격선언등 제네바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해상에서 해적행위 등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책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남과 북은 경의선, 동해선을 잇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적화통일야욕이란 상투적인 냉전공안 시각으로 애국청년학생들을 잡아가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맹했으며 노동3권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합법적 활동을 공안대상으로 몰아 탄압·구속하는 반문명 행패도 사라져야 한다

5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민주주의 발전, 인권개선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현 정권은 양심수 사면에서 인색하기만 했었다. 2000년 8·15 광복절에 20명의 양심수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제까지 성탄절, 광복절, 3·1절 등 사면에서 양심수는 언제나 제외되고 있었다. 권력형 부정비리나 거대신문재벌들의 거액탈세 등에 대해서는 인자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주와 통일을 말하고 사회 정의와 진보, 그리고 생존권 주장을 하고 있는 양심수에겐 엄격하기만 한 잘못된 제도와 관행은 시급히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오늘 구속되었거나 수배조치당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사회정의와 평화에 헌신하고 있었음을 당국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기결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라
- 미결양심수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하고 석방조치하라
- 한총련 대의원들과 노동자들에게 내린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박경순, 김대원, 이창호, 우용해씨를 즉각 석방하라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조국통일을 위해!

김현희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한해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달.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눈병 치료도 받으실 걸 ‘시와 노래의 밤’ 행사에 맞추어 충북 음성에서 올라오신 김동섭 선생님을 낙성대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가끔 감정이 북받치는 장면이 이르러서는 함경도 억양으로 “눈물이 콧나와서리…”라고 덧붙이시곤 하는데, 그 말씨가 어쩔 그리도 다감하게 느껴지던지요. 선생님의 상기된 그 얼굴에 만주 시절 한 소년이 가슴에 품었던 ‘조국해방’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때의 맑은 눈빛이 그대로 되살아나 비치고 있었습니다.



[출처: '민족21']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그 긴 싸움의 여정과 고난을 이겨오신 삶을 아쉽지마는 짧은 글로나마 여기 옮겨봅니다.

어린 시절 : 만주 화룡현

선생님께서 1925년 소련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부친 김상은 님의 원래 고향은 ‘신고산 타령’으로 유명한 함남 신고산면이었으나, 왜정 때 부모님을 모두 잃고, 독립 운동하던 형님을 따라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선생께서 다섯 살이 되던 1930년에 부친께서 의형제를 맺었던 식구들을 비롯한 여러 식구들 모두 함께 만주로 나오십니다. 용정 지나 화룡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생

계가 어렵다보니 살만한 곳을 찾아 이사를 많이 다녀야했다고 합니다. 여덟살 무렵, 청산리에서 가까운 원화동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항일유격대의 무장 투쟁을 듣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1933년, 유격대가 화룡현을 점령했는데 북아치는 총소리 속에 일본 비행기가 폭탄을 퍼부어 불바다가 된 광경을 산골짜기에 숨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선생께서 천자문을 배우러 글방에 다니면서 일본 기마대가 마을을 오가며

저지르던 만행도 목도하였는데, 지나가는 처녀들을 희롱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무나 마구 찢러 죽이는 것을 보며 울분을 품었다고 합니다.

일본놈 앞잡이들의 패악도 심해서, 마을 사람들이 항일 유격대에 식량을 내주었는지 염탐하고 다니면서 무고한 사람을 밀고하기도 하는 등 그들은 토호들을 보호하며 소작인들에게는 몹쓸 짓을 많이 했다 합니다. 머리통에 대못을 박아 죽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 여럿을 공동묘지에 끌어다가 죽여놓고 기름을 부어 불을 질러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타다만 시체들이 들개에게 뜯기는 비참한 광경을 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선생 부모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된다고 입단속을 엄히 시키고는 유격대의 짐을 져다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산 속의 갑산촌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2년을 살면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뒷산배되는 허국봉이라는 이는 유격대의 짐을 날라주러 따라나서더니 서너달 만에 짐으

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다 화룡현 청두둔 하동평 부락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청산리 전투와 백두산 항일 유격대 김일성부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중 오막살이 초가집으로 선생의 6촌 형님께서 큰어머님과 조카들까지 가솔을 이끌고 찾아오시더랍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 살아가는데 만주에서나 고향에서나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였겠으나 그저 살만한 곳을 찾아 먼길을 온 것이지요. 선생 부친께서는 근 30년만에 보게된 그 조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나 그 뒤, 형수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조카들들이 이어서 세상을 뜨자, 그 형님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맘이 아팠다고 하십니다. 선생을 업어 기르신 큰 누님조차 '염병'이라 불리던 장질부사에 걸려 고생고생하시다 해방 전해에 돌아가셨고, 선생 부친 또한 느닷없이 용정 경찰서 사채실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이 와서 상여조차 없이 산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 속에서 선생계선 산판에서 별목 일도 하고 철도노동자로, 사금판의 막일꾼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다니셨다 합니다.

19살이 되었는데 징용으로 일본 군대에 끌려가 석 달 동안 비밀공작부대인 722부대 지하 군수품 기지에서 일 해주다 집으로 돌아오니, 당시 아편 밀수를 하던 매부께서 일본 군대에 끌려가느니 차라리 징역 사는 게 낫다고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그 매부는 일경에게 들켜 연결 감옥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계선 부친의 기일이 닥쳐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경이 들이닥쳐 그 매부를 밀고하지 않았다고 선생을 끌고가 일주일 동안 고초를 겪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매부가 숨겨두었던 돈으로 장사를 해보려고 길림으로 가던 중 해방 소식을 듣고 다시 집으

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2만8천리 행군

선생계선 해방 뒤 '치안유지회'에 참여, 토호들을 척결하는 활동을 하시다가, 이듬해 집을 떠나 중국인민해방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 때 15살이던 동생 김철섭님은 먼저 군대에 나가 집에는 어머니, 누님, 어린 동생들과 조카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철섭님은 조국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데 중국에 열사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4남매의 넷째이자 장남이던 선생을 떠나 보내면서 모친께서는 "우리는 어찌 사누..." 그러면서 울며 따라오시더랍니다. 하지만 새옹지마라거나 할까? 두 아들을 인민해방군에 보낸 집안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잘 대해주어 어렵게나마 살아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46년 4월, 도라현에 도착하여 방망이 수류탄 2개와 소총, 탄창, 풀색 옷과 푸새(형짚) 신발 등을 지급받고, 46년 여름에는 황차령으로 진군, 진지 구축하고 국민당군대를 막으며 일본 패잔병을 수색, 무장해제 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 군대 형편도 어렵긴 마찬가지여서 수수가 주식이었고 강에서 물고기를 엄청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나중에 페디스토마로 고생하시게 됩니다만.) 46년 겨울부터 유격전이 시작되어 선생계선 부하 열둘을 거느리고 기관총수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며 남만주 쪽으로 이동, 47년 겨울 길림 일대를 해방시키고, 이듬해 여름 석 달 동안은 신경포위 작전에 참가, 국민당 사령관 정동국의 투항을 받는 전과를 올리며 계속 남진하게 됩니다. 48년 가을 봉천을 지나 만리장성을 넘어 황하를 건너 북경을 향해...

그렇게 중국 본토로 남진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생활

상과 색다른 풍습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9년 7월에는 양자강을 건너 끝없이 너른 벌판과 대나무 숲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숲에서 장개석군 패잔병 소탕 작전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49년 겨울, 중국 공산당 창설지로 유명한 강서성 남창에 도착. 2만8천리 기나긴 행군이었습니다.

투쟁과 풍파 속의 삶

50년 4월. 중국은 해남도까지 해방되었는데, 어느 날 사령부에서 조선부대로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 올라가보니, 선생께 종군 메달을 수여하고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주는 통행증수첩을 주며 노고를 치하하더군요. (그 때 동무와 함께 당시로는 귀하던 칼라사진을 찍어 모친께 편지를 부쳤다고 하십니다.) 새 옷을 지급 받아 입고는 강서성에서 기차를 타고 일주일이 걸려 원산 명사십리에 도착해보니 동생이 먼저 와 사단 포병 소대장으로 있더라는군요. 원산에서 선생께선 페디스토마가 도져 피를 토하게 되는 고로, 함북 주을온천에서 휴양을 하던 도중 조국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7월에 평양 사령부로 나와 경남 함안을 지나 낙동강을 향해 내려갔으나 뒤에 후퇴가 시작되어 남원 장안산에 이르러 먼당 일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는 인민군 장교들조차 허름한 농민 배옷을 걸치고 있는 처량한 형편이더랍니다. 선생께선 당시 전황을 전략적 후퇴로 판단, 산에 들어가 싸우기로 하고 몇백명 인원을 모아 부족하나마 무장을 갖추고 장수군 계북면을 중심으로 덕유산, 장안산, 회문산, 지리산, 무주구천동까지 정찰대를 조직하여 전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생께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52년 2월. 지리산 연대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지들 12명과 함께 이동 중, 백운면에서 포위당해 열명은 죽고 두 명은 총알이 떨어지는 바람에 체포됩니다. 남원 유치장을 거쳐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취조를 받은 뒤, 광주 형무소로 넘겨졌는데 우연찮게도 군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사형' 구형에 '무기' 연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천으로 옮겨졌다가 대전으로 이송, 그곳에서 만 20년2개월 옥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대전옥에서 임방규·송계채 두 분 선생님을 만났고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단식투쟁도 하고 그러다 페디스토마가 재발, 피를 토하고 앓았으나 비타민 한알도 나누어주던 동지애로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72년 4월. 출옥하시게 되는데, 당시 '오몽텅이'라 불리던 악독한 간수장이 있어 수인번호 49번 표찰을 떼면서 "죽으라고 死자 붙여줬는데 살아서 나가는군." 그런 악담을 하더랍니다.

옥에서 나왔으나 갈 곳이 없어 대전 갱생보호소로 보내집니다. 남들은 자활한다고 구두담이도 나가고 하는데 선생께선 형편없이 쇠약한 몸으로 그것조차 못하고, 어느 날 거지같이 남루한 옷을 걸친 채 마밭에서 건축 일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들이 라면을 끓여 같이 먹자고 권하여 생전 처음 라면이라는 걸 먹어보았다고 하십니다. 하루는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아이스 케키 장사를 하던 원용각이라는 이를 만나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소장이 머슴살이 같 사람을 구하기에 간청하여 범운산 자락 어느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옹어지고 고꾸라지며 힘겨운 질통 일을 하다가 보름만에 항문이 쑥빠지는 일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다시피하여 갱생원으로 돌아오니 병원에 보내 무료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하더랍니다. 그곳에서도 선생께선 거동조차 못하는 다른 환자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남을 돕고 지냈는데,

하루는 원장이 불러 사연을 묻기에 인민군으로 나와 옥살이한 것까지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겪었느냐고, 여기서 치료 잘 받고 나가시라고 하더라는군요. 병원에서 나와 닥치는대로 굶은 일도 마다않고 일하다가 리어카를 하나 구해 고물상을 하게 되었는데 코피 흘러가며 열심히 일해 동네에서 ‘고물 장사하는 이복 김씨’ 하면 누구나 알 정도가 되어 중매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 첫 번째 부인을 맞았는데, 그때도 질기게 감시하던 형사가 종종 집으로 찾아와 문지방에 걸터앉아 “왜 하필이면 저런 빨갱이랑 붙어사느냐?” 이런 위협을 해대니, 원체 신경이 쇠약하던 부인은 그 때문인지 일찍 세상을 떠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쉰 살에 스물다섯 살 차이가 나는 지금 부인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성이 굳은 분이어서 힘든 고생 속에서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88년에 대장암을 앓으셨다고 합니다.

일편단심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동지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시고 했지만 소식을 모르다가 2000년 8월 TV에서 ‘통일의 집’ 비전향장기수 인터뷰한 것을 보셨답니다. 전남 광주로 찾아가 여기저기 물어서 서울 사시던 양희철 선생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닿아 임방규·송계채 두 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감격의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차 송환을 신청하시어 명단에는 올라있으나, 남쪽의 가족을 두고 혼자 북으로 가시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남이든 북이든 어디에 있건 간에 앞으로 조국통일을 위해 남은 힘을 다하고자 하시

며, 6·15 공동선언 실천을 힘주어 강조하십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힘껏 움켜쥐고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고... 민주세력의 결집으로 수구 기득권 무리를 누르고, 미국 군사주의에 맞서 통일로 가야 한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일편단심 혁명을 위해” 살아오신 그 생애가 조국통일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되어 반드시 살아 생전에 그 날을 맞으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



세상에서 제일 커보였던 오빠에게

이제 바라는건 단 하나! 건강뿐이었는데...

오영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여름농활 때 이야기입니다. 날도 더운데 안 해보던 일하느라 수고들 한다고 마을 아저씨 한분이 닭을 한 마리 가져오셨습니다. 몇번의 만류 끝에 받기는 했는데 싱싱하게(?) 살아 있는 닭을 잡아야 먹겠지요. 모두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니까 해병대를 제대한 대원이가 닭을 잡아보겠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닭을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 닭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닭



1988년 방북때 평양불링장에서. <출처: '민족 21' >

울음소리가 들려서 닭백숙을 상상하던 후배가 닭잡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우리의 대원거사 닭의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닭이 죽기를 기다리더라고요. 또 닭의 숨이 넘어갈라치면 “어매, 닭죽네~” 하며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닭 한마리도 제대로 죽이지 못하던 김대원씨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다.

토요일 오후 김대원씨의 동생 김근영씨를 만났다.

숙대(여대)앞이라 그런지 커피숍은 연인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었다. 직장일로 약속시간보다 다소 늦은 근영씨는 내앞에 앉자마자 오빠 사진부터 꺼내 들었다. “멋있는 사진이 많았는데” 집안에 남아있는 사진이 이것밖에 없으며, 오빠의 사진을 소중하게 꺼내놓는 그녀에

게서 오빠를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나오고 있었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강진에서 김대원씨는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렸을적부터 총명함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강했다 한다. 오빠가 열살 되던해에 아버님이 운명하시자 6남매 자식을 어머니 혼자서 키워오셨다하니, 농사만이 생업의 전부였던 그곳에서 어머니의 고생 또한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1998년 김대원씨는 황

선씨와 함께 한총련 대표로 방북을 하였다.

황선 대표는 곧바로 판문점으로 귀환하였으나, 김대원씨는 범청학련 4기 공동사무국 건설을 위한 남측과견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기 공사 주거지로 합의된 중국 심양으로 옮기려 했으나 남측당국의 방해로 인해, 그해 11월경 범청학련 북측과견대표와 함께 네팔에 중간거점으로 머물게 되었다 한다. 북측의 배려로 아파트에 살림을 꾸리게 되었고 이후 주거비 및 생활비를 남·북, 해외에서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네팔에서조차 남측당국의 탄압공작으로 인해 네팔에서의 합법체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타국땅에서 숱한 고생을 하다 결국 1999년 광복절날 귀환하게 된다. 귀환과 동시에, 국정원에 끌려갈 신세라는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귀환을 자청했던 것이다. 감옥에 갇힌 그는 ‘무죄’임을 내세우며 근 한달 이상을 단식투쟁에 돌입

하기도 했다 한다. 아무리 굳건할지라도 타국땅에서 겪게 된 오랜 수배생활과 감옥 안에서 이뤄진 단식투쟁, 아마도 그에게 정신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가족들도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한다. 가족들과 동지들 면회 거부를 자주하는 것조차 의심치 않았으나, 감옥에서 오빠를 지켜보시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하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이 아닌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그가 물건에 대한 집착성을 보인가 하면, 이상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공안당국과 교도소측만 그를 정상인으로 판명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차례의 감정치료 과정에 공안당국에서 실시한 건강상태는 이상없는 걸로 판결되었고, 사기관에 어쩔사리 의뢰해 검진받은 결과는 정신건강에 이상있는 걸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당국과의 싸움은 건대에 꾸러진 김대원 대채위와 함께 지속적인 싸움을 벌여야 될 상황이라 한다.

어렸을 적 오빠가 너무 커보여서, 오빠를 닮고 싶었다는 근영씨! 통일운동을 하는 오빠를 원망하며 질책했던 날들도 많았지만, 바보스럽게도 굳건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빠를 보면서 이제 단하나 건강하기만을 소원한다는 근영님의 마지막 말이 간절하다.

청춘 남녀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오고가는 주말 오후! 그렇게도 좋아하는 오빠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차 한잔을 나눠 마실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이 시간에, 멀건히 돌아서는 그녀의 모습이 자그맣다. 아무 죄없는 건장한 청년을 “국가보안법”이란 명분아래 쇠창살에 아직도 가뒀는 이 사회의 현실은 언제쯤 되풀이 되지 않는걸까?

김대원 그가 하루빨리 가족들과 동지들 품에, 또한 우리들 곁에 건장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은 “국가보안법” 철폐하는 그날일게라! (김대원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바랍하면서...)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출처: '민족 21' >

마냥 향긋하네요

이창희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는 회원들은 '강물이' 라는 이름을 쉽게 기억할 것이다.

〈마냥 향긋한 11월 첫날 아침〉

글쓴이 : 강물이

오늘 늦은 새벽에 들어오니 울 흙피가 뜨지를 앓더군여.
땀 사이트들도 들어가 보니 잘 뜨던땡. 서버가 다운된
걸거나? 내 컵이 잘못된 걸거나?

구런디, 이렇게 일어나서 들어와 보니 짜안...!
흙피가 메롱~! 하면서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

신선한 아침 공기, 싸아...하게 맡으며
상희님이 올려주신
이지상님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

한.참.동.안.
잔.잔.하.게.
얏.아.서...

잘 듣다 읽다 갑니다.

그렇게 10월을 보내고 맞는 11월의 첫날 아침.
마냥 향긋하네요.

이렇듯 강물님이 올린 글은 항상 향긋한 사람내음 진
하게 난다. 근데, 요즈음 바깥은 지 통 글이 올라오지 않
는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강물이' 회원을 이번 '후원회 소식' 의 이
런 회원란을 통해 알리고자 한다.

1. 갓 돌 지난 아이가 감옥에...

1967년 서울 연희동에서 이쁘고 착한 외동딸이 태어
났다. 부모님은 농촌운동을 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군 비
봉면에 내려가 각각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
셨다. 그러던 중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이 터졌다.

갓 돌 지난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제복 입은 사람들에
게 둘러싸여 검은 짚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갔다. 놀랍게
도 아이는 그 때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의 기억에 의하면 각 방에서 매맞는 소리가 가득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젓조차 나오지 않아 아이는 먹은 것도
없어 거의 까무러쳐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남편을 보
게 해달라고 울부짖었고, 완강히 만남을 거부하는 공안
당국에 대해 갓난아이를 패대기칠 자세로 아이도 죽고
나도 죽겠다며 몸부림쳤다고 한다.

아이의 목숨마저 건 절규로 부모님은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신은 오래 있을 것 같다며 나가서 살 길을 찾으라고 했다고 한다. 석방된 뒤 어머니는 시골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연희동으로 와서 움집 형태의 골방에 동지를 틀고 온갖 고생을 하며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셨다고 한다. 그 후 아버지는 무기수로써 역경의 옥중 20년을 넘어 1988년에 가석방되었다.

그 아버님은 바로 우리 소식지 제호 ‘후원회 소식’을 써주신 오병철선생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장기수 선생님’의 외동따님이 바로 36세 미혼의 ‘강물’ 오수강님인 것이다.

2. 강물의 여정

어린 나이에 아버지 이해하고, 세상에 조금 눈 뜬 딸은 자주 감옥에 면회를 가고 편지를 썼다. 1986년 웬만큼 공부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강은 감옥에서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서고 싶었던지 이화여대를 마다하고 서울대를 가고자 했다. 욕심에 재수도 하고, 삼수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몸이 아파져 공부를 중단하였다.

감옥에서 안쓰럽게 딸을 보다가, 공부보다 공장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던 아버님은 가석방 후 가까이서 본 딸의 약해진 몸에 놀라 함께 ‘호연지기’ (?) 차원에서인지 2년 정도 전국을 여행하였다. 1990년에는 그동안 아버님께 보냈던 편지를 모아 ‘창살가의 햇빛’이라는 제목의 책도 내었다.

그러다가, 출판사에서 일하기도 하였고, 1991년 움시통감시룡을 만나게 되었고, 민가협양심수후원회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후 수강은 공부에는 줄곧 관심이 있었으나, 사회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라사랑청년회’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였다.

20대 후반,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세상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영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 1997년 29살에 영국에 가서 1년간의 예비과정을 거친 후

1998년 ESSEX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런던에서 전철로 40분 거리에 있는 영국 최초의 공식도시인 콜체스터에 자리잡은 이 대학은 진보적인 학풍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대처 수상시절 보수주의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대학생시위를 이끈 중심 대학이었다고 한다.

4년간 기숙사 생활을 한 누나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

“감기 걸리면 기숙사 옆방 여자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고향집 산에서 뜬 폴로 만든 차인 ‘그리스티’를 끊여 주었어. 그것을 먹으면 금방 감기가 나았지. 방학 때면 그 친구는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주 가지 못하는 나를 생각해서 선반에 그 차를 가득 넣어주고 갔어. 얼굴도 엄청 예쁘고 착한 친구였어. 나이는 나보다 어렸는데...”

인터뷰 도중 필자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 여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꺾떡했다.

누나의 졸업논문 제목은 ‘한국 분단과 여성운동’이었다. 2001년 졸업후 귀국하여 1년간 정리와 준비의 시간을 거친 후 조국에서 대학원공부를 하기로 하고 내년 3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원에 여성학 전공으로 입학할 예정이다. 최근 홈페이지에 자주 들르지 못한 까닭은 대학원 시험 때문이었다고 한다.

“사실 외동딸에다가, 사회생활을 많이 못해본 탓에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일찍 눈을 뜨지 못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각 나라의 여성을 보니 우리나라 여성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래서, 여성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

3. 사회학도의 아름다운 눈

“어느 날 BBC에서 우리나라의 통일, 학생, 여성운동 등에 대해 방송을 했어. 우연찮게 새벽 2시에 하는 방송을 보게되었지. 96년 연대항쟁이 나오는 거야. 그 당시 잠시 귀국해서 한 친구로부터 눈물 흘리며 그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후 영국에서 TV로 보게 된 거야. 연세대에 최루탄 연기 자욱한 속에서 ‘희망’이라고

쓰여진 노란 깃발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면을 보았지. 보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

누나는 필자에게 그 깃발 들고 있었던 남자 친구 알면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 이제 피장파장이다.

“남북정상회담때 영국에서도 그 뉴스가 메인으로, 탐으로 다루어졌지. 감동이었어. 참 한국 소식으로 보기도 드문 경우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에 기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자랑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다면서 나한테 더 자세히 얘기해 달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 우리나라 두 정상이 다 잘생기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거리를 걸으면서도 즐거웠다는 기분을, 필자도 거리를 걸으며 백화점의 대형간판에 남과 북의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이 걸려있을 때 느꼈던 추억 속의 감동을 떠올리며 동감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지낸 지금 1년은 나에게 추억과 꿈을 넘나들었던 시기였어. 이것저것 시도도, 준비도 많이 해보고, 무리도 많이 했지, 그래서 감기도 자주 걸리고, 보람도 많았어. 2002년 국민경선과 노풍, 월드컵의 붉은 악마, 아시안게임의 이북응원단, 광화문의 반미 촛불시위 등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지.”

어느덧 이야기를 하는 누나의 눈에는 노란 희망의 깃발이 날리고 있었다.

4. 다시 재개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활동

“지난 봄 권오현선생님 생신때 갔다가 선생님께서 직접 편집모임 활동을 하라고 추천해서 하게 되었어. 그런데 나는 사실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둘 다 하게 되었지.”

그렇다. 수강누나는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에다, 홈페이지관리팀 성원이기도 하다. 이제는 다시 공부를 하게 되어 미안하다며 편집위원 하나로만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누님 맘대로 하시라고 했다.

으레 마지막에 하는 질문인 후원회에 대해 바라는 점

을 묻자 “후원회가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도 개방적이었으면 해.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구.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래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고 되물었다. 필자는 고개를 끄덕거림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참 해야 할 일 많구나리는 생각과 더불어 현실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뷰는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누나 탓에 누나의 집에서 했다. 필자는 미리 집 앞에서 쌍화탕을 마시고 들어갔다. 유비무환이다. 개와 강아지가 집의 안팎에서 누나를 항상 호위하고 있었다. ‘폴폴이’라는 개는 마치 자기가 인터뷰 대상인 양 함께 자리를 했다. 누나는 개에게도 인정이 많았다. “보신탕은 먹어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은 게 후회된다.

외국 유학 갔다 오고도 영어 한마디 쉽게 쓰지 않는, 여성학 전공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많이 느껴지는 여성으로의 딱딱한(?) 분위기가 없어 더욱 좋은 수강누님에게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한다. ~~하~~

원래 이어진 땅인데 말이죠.

광희씨 보세요.

요 며칠 날씨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렇게 징역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네요. 날씨도 춥고 이것저것 불쌍하게 보아야 될텐데... 좀 아쉽네요. 징역살이가 그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생각해보면, 보내주신 선물이며 마음씀씀이 덕에 이렇게 탈 없이 지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밖에선 독감으로 난리가 아니라는데 어떤지요? 펜스레 독감에 붙잡혀 고생하지는 않나요? 만만찮은 놈이라고 하던데... 요즘 같아선 독감도 미국 놈들이 퍼뜨린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에 거세지는 반미폭풍에 그렇게라도 하고 싶겠지요. 사실 여중생사건 무죄판결에 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나 할까요? 전후 상황이 웬만해야 할 말이라도 있겠는데...

광희씨 말마따나 이런 현실을 엮어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참 내.. 저처럼 허탈에만 빠져있는 불쌍한 중생에게 숨구멍이라도 틈워주세요. 게다가 겁대가리 없는 놈들이 남북이 합의해서 터놓은 길까지 막으려고 하니... 맨 땅에 철조망 박고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더니 철도며 도로 터놓으려는 것까지 지들 맘대로 하려고 하네요. 원래 이어진 땅인데 말이죠.

태풍전망대라고요? 광희씨도 보고 왔다니 잘 알겠네요. 제가 군대를 강원도 골짜기, 전방부대에 있었거든요. 물론 철책 근무도 셧구요. 대남방송도 들으며(당시 '휘파람' 이 많이 나왔어요) 북쪽 군인들 근무서고 농사 짓는 것도 봤어요. 맨땅(둘일 수 없는)에 철조망 세워놓

고 쓸데없는 병정놀이하는 게 영~. 하여간 원래 하나인 땅에 철조망 세워 갈라놓은 놈들이 아직도 땅이, 길이 이어지는 걸 막고 있고 그게 지금은 기름에 에고 이런 멍청한, 지금은 불에 기름을 들이붓는 꼴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헌신분투 하시는 광희씨, 웃을 수 있는 성과 있기를 바래봅니다.

대선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네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얽히며 막관까지 혼전을 이룰 듯 하네요. 갈림길에 선 민족, 민중에게 희망과 기쁨이 차려지도록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외신까지도 반미분위기가 이번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군요. 민족에 등을 돌리고 미국에 아부굴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안되지 않아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연말입니다. 평가도 해야겠고 전망도 생각을 해야겠고 무지 바쁘겠지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나름의 생각이 많으실 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걸 거리에서 하게 되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엄청 실천적이고 결의에 넘친 마무리와 시작이 될 것이니까요.

좋은 연말 되리라 의심치 않아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12월 5일

안동에서 준혁 드림

● 손준혁님은 19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과 6기 한총련 의장을 역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1년 5월에 구속되어 징역 3년형을 받고 현재 안동교도소 3001 번으로 수감중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감옥이라는

촛불시위

- 광화문 백만 반딧불이여

눈물을 흘리는
꽃은 없다

어둠을 태우는
꽃은 또한 없다

온기를 전하는
꽃은 더더욱 없었다

꽃도 짐승도
사람은 더더욱 아닌 것이
빛의 눈물로
피열핍 끓는다

어느 사찰 법당에도
저 높은 성당의 종탑
저 찬란한 내온십자가에도
타오를 수 없는 빛무리

저기 광화문
보신각 종소리처럼
췌 한 개의 별빛을 쫓는
뇌성으로 울려 퍼진다

두 영혼의 반딧불이
수 백만 송이
붉은 악마의 함성으로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눈물도

저렇게 타오를 수 있구나
분노가
갑오농민 햇불처럼
혁명의 불길이 되는구나

두 못다 핀 꽃송이
수 천 만 반딧불로
휘휘 일어나는구나
날아가 화살처럼 박히는구나
기어이 살인미군 심판하는구나

아,
광화문의 촛불이여
수 천 만 꽃불이여

아,
분노의 파도여
감동의 물결이여

아,
자주의 바다여
평화의 바다여

대!한!민!국!
다시 휘휘
부활하여 비추어라.

-광화문 백만 촛불시위 그 날까지

살인미군 한국법정에서 처벌하는 그 날까지
부시대통령 사과하는 그 날까지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 그 날까지
평화통일 대동세상 그 날까지

저는 2000년 6월 20일 폭격 중인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농성을 접거하고 태극기를 휘날린 최종수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동포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십니까. 몸과 마음 편안하게 잘 보살피십시오. 그래야 다시 열심히 투쟁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몸과 마음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이 마음은 영어 몸이신 동지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떠난 지 어느덧 1년 10개월이 되어 갑니다. 고향을 떠나 본 사람만이, 아니 조국을 떠나 살아 본 사람만이 고향과 조국의 소중함을 절실히 안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향과 조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다시 돌아가야 할 조국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식들. 50톤의 미군 장갑차에 짓이겨진 두개골에서 터져 나와 갓길을 덮어버린 하얀 골덩이. 비닐로 골을 덮는 한국 경찰. 선탐차의 무전을 듣지 못했다는 귀머거리 미군. 하지만 살인자 미군은 자기들끼리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미군에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현실. 저는 캐나다에서 효순이와 미선이를 위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여중생들의 오열을 보면서 저 또한, '홀로 사랑보다 아름다운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외롭게 투쟁하시는 백발 신부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 민족의 십자가를 벗어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의 하늘나라를 투쟁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3년이라는 교포사목 임기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투쟁하는 동지들이 더 보고 싶었고, 한국에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 문제가 대선에 묻히기 전에 미대사관 집회에 한번이라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인터넷 뉴스에 부시정부와 미군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의 글을 올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제서품 후 미군기지, 미대사관,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 기아특수장 복직 농성장, 새만금 등의 집회현장과 농성장, 그리고 거리와 바다에서, 고향과 캐나다에서 써 왔던 시들을 '지독한 갈증'이라는 시집으로 묶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갈증(문학과경계사 刊)'은 많은 그리움과 갈증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갈증, 아버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생명과 연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이런 모든 바람과 갈증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벌써 5판 인쇄가 끝났고, 인쇄 275만 원은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으로 후원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해서 11월 12일(화) 미대사관 월례집회를 마치고 오후 6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구 MBC 옆) 2층에서 신부님들과 지인들, 시민단체 동지들과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시에 조출한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다음 날 13일 오후 9시 비행기로 캐나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은 60년대에 이민 와서 60년대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몰아간 일입니다. 북한 장충성당에서 최초로 미사를 드린 고종욱 마태오 신부님의 '한 송이 해바라기처럼(가톨릭출판사) 단상집과 함께 제 시집 '지독한 갈증(문학과경계사)' 어깨동무 출판 기념회가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있었던 두 여중

생 사건 해결을 위한 반미연대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토론토 코리아 뉴스(3,000부 정도 발행되는 주간지)가 한국의 일간지에서 다운받아 실은 화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집회사진에 “토론토 근교 피터보르 성당의 최종 수신부(사진)가 지난 주 서울 광화문 시민공원에서 열린 ‘반미연대집회’에 참석 미국의 패권주의와 폭력성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10월 25일 코리아뉴스)라는 사진 설명기사가 출판기념회 취소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 기사가 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화보 사진이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필화보다도 더 어처구니없는 화화가 발생한 것이지요.

캐나다에는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면 은혜를 모르는, 발칙한 빨갱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일부 극우보수주의자들에게 빨갱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람인지, 하기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의 사촌인 캐나다 시민권자들이기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극우보수주의자들의 미치광이 짓이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매일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가슴으로 읊니다. 때로는 두 눈에서 분노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동백 꽃잎처럼 뚝뚝 떨어집니다.

졸작의 시를 보내 드립니다. 백만 명의 반딧불에 촛불 하나 함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해야만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로 감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터지게 싸우다가 수구 숭미주의와 자본주의의 꼭두각시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지만 또다시 현장으로 가서 싸우

는 용광로 같은 힘의 원천이 감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감옥 가지 않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와야겠지요. 민중이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와야겠지요. 그러나 투쟁하지 않고 그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투쟁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투쟁은 자신과 싸우는 감옥에서의 투쟁입니다. 여기서 이길 때 비로소 더 큰 투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교만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항리 농성 절거 후 고작 3일 유치장에 살았으니까요. 햇병아리가 마치 어미 닭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동지들이 우리 시대의 아기 예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마련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혁명이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기쁜 성탄! 몸과 마음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연대합니다. 투쟁합니다.

캐나다에서 최종수 신부 올림

●최종수 신부님께서 이번 달에 1,000,000원의 후원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것으로 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에게 당신의 시집과 함께 맛있는 과자를 사서 넣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규정상 음식을 반입이 금지되어있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신부님의 시집과 함께 영치금을 만원에서 이만원으로 올려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희와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라며

문숙희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오늘은 제 친구 공은희 면회기는 날입니다. 회사 다니느라 자주는 못 가지만 일찍 퇴근하는 토요일서울구치소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은희는 저와 20대를 함께 보낸 친구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20대의 추억과 희망과 열정을 함께 나눈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92년 대선투쟁 때도, 94년 쌀투쟁 때도, 96년 연세대에서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친구!" 하며 손을 흔들던 은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은희가 4년 동안의 긴 수배 생활에 들어간 것은 북부총련 간부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졸업 후 우리 96년 덕성 총학생회 집행부들은 다들 제 갈 길을 찾아갔지요. 한 친구는 사회단체로, 한 친구는 청년회로, 한 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리고 저는 공부를 더해보겠다는 욕심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맞대며 아침 선전전을 하던 은희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시경에서는 제가 은희의 소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다니던 회사로 말이죠. 제 휴대폰 번호나 집 전화를 알고 있었을 텐데 시경이라면서 왜 굳이 회사로 전화했을까요?

어쨌든 은희는 끝이 보이지 않던 수배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은 차가운 독방 안에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은희에게 미행이 붙었던 모양입니다. 은희는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고 지금은 항소 중입니다. 편지로 전하는 은희의 생활은 대강 이렇습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점검(군대에서 하는 점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과 방안에서 하는 아침 체조를 마치고 108배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30년의 시간들에 대해 생각해보구요.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신문을 읽고 시사 잡지들을 읽지요. 빵과 과일을 좋아하는 은희는 빵과 사과를 받쳐먹는다고 합니다.

오후 점검을 마치고 창문에 입을 대고 노래를 부르답니다. 참고로 저는 은희가 노래 부르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출소하면 은희의 노래를 꼭 한번 들어보려구요. 청계산 자락으로 해가 넘어가는 가는 것을 보고 나면 TV 시간이 돌아오죠. TV보고 저녁 운동하고,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을 청한답니다. 이 중에서도 생활의 활력소는 1인 선전전이라고 하네요. 방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게 창문을 향해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대해, 그리고

한총련의 이적규정철회에 대해 목청껏 얘기한답니다. 가끔 회담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면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얼마 전 덕성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덕성 양심수후원회를 꾸렸습니다. 건국대에서 주점도 열여 후원회의 출범과 양심수의 소식을 알려냈구요. 홈페이지도 만들었어요. 은희 외에 감옥에 있는 방북대표 황선과 범청학련 간부로 활동했던 김혜신 언니의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개인적인 생각도 나누고, 사는 이야기도 하는 덕성 사랑방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촛불 시위에서는 '덕성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꽃봉우색 깃발도 띄워 주한미군 철수의 의지를 함께 했구요.

참 이 코너 명이 면회기인데 정작 면회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군요. 기대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할테니...

서울 구치소로 올라가는 언덕길, 대학 1학년 때는 선배들 따라 오르다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눈물 흘리시며 올랐던 길이지요. 또 지금 신랑인 유병문의 옥바라지를 위해 한때 매주 찾기도 했었고, 지금은 친구들 만나는 길이 되어버렸네요.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오고 있지만 이 곳은 정말 변함이 없어요. 면회객들이 송으로 밥벌이하는 택시 아저씨들이며 높은 담장과 감시탑, 한숨쉬고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어머니들...

여자 면회 사동은 오른쪽 편에 따로 있는데, 오늘 따라 햇볕이 창문 새로 한 움큼씩 들어와 있네요. 면회를 알리는 방송을 기다리며 은희의 작은 방에도 따뜻한 햇볕이 차고 넘쳤으면 하고 맘속으로 빌었지요. 이 곳에서 이름을 대신하는 '241번' 수번이 불려지고 은희의 둥그란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몸이 추운지, 마음이 추운지, 수건을 목도리 삼아 두른 은희의 모습이 많이 추워 보이더라고요. 국가보안법 철폐 단식농성을 마치고 지금은 복식 중이라서 죽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저런 얘기로 짧은 10분이 금세 지나고 터덜터덜 다시 언덕길을 내려왔어요. 올라다 본 하늘은 이런 슬픈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너무도 파랗고 이름답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은희의 항소 선고 공판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려구요. 즐거운 성탄절날이니까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거라구요. 은희가 이 면회기를 차가운 독방에서가 아닌, 은희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 곁에서 읽을 수 있길 바라요. 

‘딱~좋아, 딱~좋아’

한수정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11월 17일. 오늘은 11월 내내 기다리던 후원회 산행이 있는 날이다. 저번 달에 참석을 못했던 터라 오늘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 왔는지 모른다. 아침에 일어나 창 밖을 보니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와~, 첫 눈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행에 눈까지 내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좀 흥분을 했는지 평소 앉았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반찬은 계란말이 하나. 그런데, 도시락을 싸는 것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찌나 늦겠네...’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탔다.

“아저씨 그린파크 앞이요, 빨리 거주세용~~~.”, “늦는 사람이나 말고 또 있겠지.”란 기대로 그린파크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늘은 모두 제시간에 오고 집이 가장 가까운 나만 30분이나 지각을 했다. 후후~^^. 같이 지각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나으려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에게 꾸중을 듣고 죄송하다고 열 번은 말하고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까지 내리고 날씨도 추웠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다시는 늦지 않으라~~~’ 산을 오르는 중에도 계속 눈이 내렸고 내린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쌓였다. 아! 이 감동을 어찌 표현해야 좋을까? ‘딱~좋아, 딱~좋아’

산을 오르면서 창학오빠가 어제 있었던 회원들 모임 얘기를 해 주었다. 어제는 모처럼 회원들이 재영오빠 집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나는 시간이 늦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간 다음 이 간사님이 학교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한 채 들어와서 행했던 만행에 대한 얘기였다(쫄쫄..). 간사님을 놀리며 재미있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이 듣던 유기진 선생님께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선생님께서 젊으셨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을 때였다. 공장에서 막걸리를 나누어주었는데 별다른 안주



도 없이 배가 고파서 앞에 마시지 않는 친구의 것까지 연거푸 마시다가 그만 취하셨다고 한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없이 잠에서 깨었는데 선생님께서 평소 존경하시던 사촌형님께서 선생님을 꾸짖으셨고 선생님께서는 그 이후 다시는 술에 취하는 일이 없으셨다고 한다. 한번의 꾸짖음을 계기로 평생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눈 덮인 산도 구경하고 하다가 문익환 목사님이 이름을 붙인 도봉산 계곡 한 자락인 ‘인방’에 도착했다. 인방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눈이 조금씩 계속 내리기도 했고, 날씨도 추워서 빨리 점심을 마치고 자리를 치웠다. ‘난 더 먹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점심을 마치고 길이 미끄러워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였다. 길이 미끄러워 내려오는데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기분은 정말 상쾌했다. 내려오면서 창학오빠가 아직까지 재영오빠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니 눈이 언제 왔냐고 하더라. ‘불쌍도 하지~~~ 이 좋은 걸 못보다니...’

날씨도 춥고 어제 무리한 사람도 많고 해서 뒤풀이를 짐질방에서 하기로 했다. 우리 집이 가까워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짐질방으로 안내를 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자유시간을 갖고 1시간 30분 뒤에 모여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이창희 간사님의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시사강좌를 들었다. 이렇게 산행 때마다 그때 그때의 시사문제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후원회 산행의 또 다른 묘미인 것 같다.

산행도 하고, 눈 구경도 하고, 피로도 풀고, 이번 산행은 많이 기다렸던 만큼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헤헤...”

제주 4.3 민중항쟁

유선화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몸은 훌가분해도 마음은 무거운 날이 있다. 아이들을 집에 두고 역사 교실에 가는 날이다. 전날 미대사관 앞까지 촛불행진을 한 감격을 안고서 낙성대 '만남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약간은 빨라지고 있었다.



아직 한상권 교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보여 주실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오시기 위해 학교에 다시 가셨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역사 교실 강화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송구스런 마음이 있었는데... 올해의 마무리 강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 주제는 1948년 제주 4.3 민중항쟁에 관한 것이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자료를 읽고 있었다. 많이 들었지만 실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착하자마자 곧 바로 우리는 4.3항쟁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제주 4.3항쟁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4.3이 무엇이나고 묻는” 학생들의 반응에 더 놀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지만 나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다.

제주도는 저항운동이 강한 지역으로 이념갈등이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좌우 연합적인 균형정책을 펴고, 공동체와 자율성이 강했던 지역이라고 한다. 47년 중반 이후 미국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세력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이 시작된다. 또한 남로당을 불법화하면서 남로당의 정세

인식변화는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민중들의 통일 민족 국가수립에 대한 열망과 맞물려 투쟁은 폭력을 동반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변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높아져 있고, 변혁운동이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제주도에 4.3항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금 4.3항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민족통일 운동의 일환으로 통일 염원과 정당성을 끌어내는 것,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5.10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유일한 반대로 단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민중항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위의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다음주 있을 반미 촛불시위에서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유채꽃 활짝 피고 신혼 여행지로만 알고있던 제주도, “정방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라는 어느 회원의 이야기도... 이제 우리에게 제주는 역사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역사적 용어로, 불가피하다는 말은 적당치 않다.” 라는 교수님의 끝 말씀이 한참동안 마음에 남았다.

오랜만에 만나도 늘 만났던 사람들처럼 좋은사람들이 북적대는 양심수 후원회 사람들과 역사교실을 끝내고 송년회를 가졌다. 이창희 간사의 걸쭉한(?) 입담으로 시작된 송년회는 여러 회원들의 구수하고 의미있는 이야기들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들을 보냈다. 내년에 있을 역사교실에 모두 잘 나올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12월 14일

이용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열 네 번째 「보랏빛 수건」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여느 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대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으며,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을 애도함과 동시에 재판권 이양을 위한 범국민 촛불시위가 공교롭게도



였다. -때마침 『크라잉넛』이라는 책이 출판되어 꼭 읽어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크라잉넛의 경우 군대에 간단다. 갔다와서는 시와 노래의 밤에 계속 출연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젊음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레이즈본의 경우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시와 노래의 밤과 동시에 진행되어 주최측에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한 것 같다. 나의 경우도 촛불 시위에 참석하려다가 단 한번도 가보지 못한 시와 노래의 밤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도 크게 작용하여 -오해하지 말기를 본인의 경우 부산에서 계속해서 생활한 관계로 서울에 올 여유는 없었다. 관람하게 되었다. 시와 노래의 밤 경우 예년의 분위기는 현장에서 경험한 적이 없지만 2500여명의 인파가 커다란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우기는 어려운 듯 조금은 험한 공간의 분위기는 감돌았다. 그러나 사회자 최광기는 전문사회자답게 구수한 입담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열창으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는 무르익어 갔다. 출연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무대로 나와 열창을 하고 퇴장을 할 때마다 영상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촛불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와 노래의 밤 행사로 찾아오는 관객도 있었다.

첫 무대는 크라잉넛에 이어 레이즈본이 출연하였다. 이들의 경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처음 들어 보는 가수

양심수가 무엇이었는데도 몰랐단다. 또 한편으로는 양심수를 이해한 우호대중가수가 늘어난 것 같아 흐뭇했다. 단골가수로 출연하던 꽃다지는 시와 노래의 밤과 함께 해온 산증인이라 불려도 무방하리라. 그러나 ‘반미’에 대한 발언은 대중의 정서를 조금 더 올바르게 직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용한 분위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신해철이 출연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다가 한대수와 전인권이 차례로 나오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하면서 마무리되는 아쉬운 시간이 흘렀고 끝내는 양심수의 어머니들과 장기수 선생님들이 촛불을 들고 무대에 올라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시와 노래의 밤.

이 콘서트를 두고 세계 최장기 콘서트라고 칭한다. 그러나 이는 분명 부끄러운 기록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다. 이제는 변화시키자. 최장기 인권 콘서트를 부끄러워하며 최장기 콘서트의 역사를 끝냈으면 한다.

14년의 역사도 지났다.

내가 감히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를 나누고 싶다.

오늘의 시와 노래의 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행사가 조금 밋밋하다는 점이다. 지난 13년의 내용은 모르겠다. 그러나 그간 13년의 내용이 지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다면 약간의 변화를 꾀했으면 한다. 그 변화에 대한 제안은 짧은 지면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워도 일회적인 무대공연인 경우 변화를 가지는 힘들어도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과거 엠비시(MBC) 대학가요제가 얼마 전 방송기획자(PD)까지 교체하면서 활성화를 꾀하려고 노력한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명을 거론하자면 주철환 PD(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다. 그가 대학가요제를 다시금 맡았을 때 '대학 가요제는 대학가요제답게' 였다. 녹

화현장도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대학의 배움터였다.

물론 우리의 시와 노래의 밤이 상업적인 대학가요제만큼이나 전락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말이지 우리의 최장기 인권 콘서트 14년의 역사 속에서 언젠가는 최장기라는 역사의 콘서트를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이의 마음이라고 본다. 이 콘서트만큼은 그 누가 아무리 딴따라 불러다 쇼하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든 12월 연말정도는 우리 사회에 양심수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더 많은 대중이 어린이에서부터 60·70대 노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잡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21세기 언젠가는 양심수가 없는 국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올 한해도 양심수 없는 세상을 위해 고생하신 선배님들과 선생님들께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



알립니다

1월 산행

새해의 가슴벅찬 희망내음을 맡고자 우리 함께 겨울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제: 1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어디서: 평창동 북악파크호텔앞

갖출것: 회비 3000원, 도시락 등

오는 편: 8번, 135번 시내버스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교실' 이 새해 들어 본격적인 격동의 한국 현대사강의로 접어 듭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1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에 항의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매주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매주 토 오후 4시~5시(1시간)

장 소

답골공원

박용길 장로님의 평양 길

김재규 통일맞이 사무차장

이번 박용길 장로님 일행의 방문은 지난 12월 6일부터 삼성동 KOEX에서 전시하고 있는 [평양 고구려 유물전] 개최를 위한 것이었다.

북녘의 장기수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처음 박용길 장로님께서 장기수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는 집들을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도 하고, 북녘에서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남녘에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북녘의 수행 담당자에게 요청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혔고, 북녘에 계신 장기수 선생님들을 대표하여 김선명, 김석형, 홍명기, 홍경선 선생님 네 분이 박용길 장로님 일행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박용길 장로님과 장기수 선생님들의 반가운 만남은 2002년 11월 17일 고려호텔 2층 5호방에서 이루어졌다.

당연히 처음 인사는 남에서는 북에, 북에서는 남에 있는 사람들의 안부일 것이었다.

장기수 선생님들께서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사람들, 통일광장 식구들, 민가협 어머니들 등 남쪽에서 함께 생활했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사업에 노력하고 있는 모두에 대한 안부를 궁금해 하셨다고 한다.

북녘으로 오신 모든 장기수 선생님들은 대부분 건강하시다고 한다. 함께 자리하신 김석형 선생님의 건강이 부쩍 좋아져 있는 모습에서 또한 다른 분들의 건강을 비추어 볼 수 있었다.

하나 안타까웠던 사실은 남쪽 대표들이 병중에 계신



이인모 선생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면회를 하지 못할 만큼 선생님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었다. 남쪽 대표단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인모 선생님에 대한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분들은 무척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에 생기와 기쁨이 늘 담겨있어 박용길 장로님 마음이 매우 뿌듯하셨다고 한다.

장기수 선생님들 모두는 북녘 정부의 배려와 지원 속에서 당신들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한다.

대표로 오신 4분 모두가 자랑스레 달고 있는 훈장과 북녘에서 배려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동안 당신의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취한 일에서 잘 알 수 있었다.

홍명기 선생님은 남녘의 감옥에서 시작했던 외국어 공부를 북녘에 가서도 더욱 열심이셨고, 지금은 5개 국



어 이상을 남녘에 있을 때보다도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신다.

또, 김석형 선생님께서는 다시 학교를 입학해서(많은 애기들을 나누다 보니 박용길 장로님께서 학교와 과목을 잊으셨다고 한다) 공부를 마치시고 이번에 졸업하신다고 한다.

그리고, 홍경선 선생님께서는 붓글씨에 전념하셔서 북녘의 국가적인 전시장에 대표 전시품으로 걸려 있다고 한다.

북녘의 배려도 있었겠지만 선생님들의 밝은 표정에는 항상 인생과 민족에 헌신하는 굳건한 정신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장 기뻐던 소식은 김선명 선생님께서 반려자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었는데, 더더욱 기쁜 일은 결혼과 함께 후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된 일이다. 부인되신 분이 급지옥엽 키워온 아들인데 이제는 두 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남과 북의 역사를 잇는 소중한 우리의 아들이 됐다.

김선명 선생님은 이번에 경의선이 개통되면 신혼여

행을 서울로 오시겠다고 해서 좌중이 희망과 기대의 웃음 바다가 됐다고 한다.

박용길 장로님과 장기수 선생님의 만남의 자리에선 당연히 남녘 동포들, 북녘 동포들의 삶이 중요한 이야기의 주제가 될 것이다. 서로를 걱정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얘기하는 따뜻한 만남은 2시간 여 계속되었다.

장기수 선생님들은 북녘의 전시장에 전시된 문익환 목사님 초상화를 박용길 장로님께 선물로 주시려고 했으나, 장로님께서서는 북녘의 동포들과 북녘을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 그냥 두자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장로님께서서는 실과가 귀한 북녘의 사정을 생각해 장기수 선생님들께 남녘의 사과를 선물하시며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셨다.

이번 만남이 더 크게 이어져 남녘과 북녘의 더 큰 만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경의선이 하루빨리 연결되어 김선명 선생님의 서울 신혼여행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효순아! 미선아! 민족자주의 환한 불꽃으로 부활하거라!”

박정범 '후원회 소식' 편집위원

“효순아!미선아!
빠속 깊이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
문 사거리에서 너희들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러본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고통
스러웠니.”

한 살배기 어린 아이를 꼭 품은
젊은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펄펄
흘러내리고, 평생을 미국이 우리
의 영원한 우방인줄 알았던 남가
좌동 칠순 노인이 ‘반미’를 외친
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지
난 6월 월드컵때 입었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촛불을 들고 눈물
을 흘린다. 수능시험을 마친 여고
생이 삭발을 하고, 의사, 약사, 변
호사들이 살인미군을 한국 법정
에 세우라고 주장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전
경들의 방패에 찍히면서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미국
을 물러가라고 미대사관 앞에 드러눕는다.

“효순아. 미선아!
10만명의 군중을 보고 있으니. 10만개의 반딧불을 보고
있니. 지난 57년, 분단 반백년 영원한 우방 미국을 향해
절규하는 우리 민족의 몸부림을 보고 있지. 너희들은 지
금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민족자주의 횃불로 불타오르
고 있단다. 조금만 더 일찍 우리 국민들이 깨었다면 어
찌면 이렇게 억울하고 가슴 무너지는 허망한 죽음을 당
하지 않았을 텐데...”

꽃같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명을 달리한 너희



[출처 : www.hani.co.kr]

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초가 다 타들어 가고, 집회분
위기가 무르익는다. 선무방송 차
량에서 흘러나오는 ‘아리랑’ 에
몸놀림을 맞춘다. 시청에서 광화
문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에 반딧
불이 가득 들어차고, 군중에 포
위된 전경들과 닭장차들이 애치
롭기 그지없다.

“효순아,미선아를 살려내라!”
“효순아, 미선아! 우리가 왔
다.” 조선일보 앞을 지날 때 흥분
한 많은 시민들이 계란을 던졌
다. 친미·분단에 기생하는 신문
사에 줄줄 흘러내리는 계란 자국
에 통쾌한 기분이 든다.

“효순아!미선아!

우리들은 너희들의 억울한 죽음이 해결될 때까지 이
곳 광화문에 촛불을 밝힌단다. 12월 31일. 2002년 마지
막 날에도 너희들을 보러 광화문에서 우린 모인단다.

너무도 추운 겨울.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난 나라 백성으로 태어나, 제명을 다하지 못한 너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하지
만, 너희들은 4천만 우리 국민들과 7천만 겨레의 가슴
에 ‘민족자존’이라는 희망의 촛불을 심어놓았단다.

효순아! 미선아! 다음 주에 또 만나자! 그럼, 안
녕! **후**

●지난 12월 14일 오후 3시 시청앞에서 열린 ‘주권회복의날’ 범국민평
화대행진에 참석한박정범 회원님께서 참가소감글을 보내셨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2 회원 송년모임” 보고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2 회원 송년모임이 12월 15일 정오 광화문 ‘새서울주물럭’ 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송년모임은 2000년 9월 2일 장기수선생님 복녃 1차송환 이전의 송년모임만큼이나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신 장기수선생님들과 민가협 어머님들, 각계 사회단체 어르신들과 여러 회원분들 150여명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두 많이 모인 서로를 보며 기쁘게 웃고 더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송년모임 1부는 이기욱 부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되어 민중의례를 드리고, 권오현 회장 인사말과 오신분 소개에 이어 이일규 회원이 장기수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김숙희 회원이 민가협 어머님들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였습니다. 이에 통일장광 임방규 선생님과 민가협 조순덕 회장님,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님, 그리고 범민련 이종련 의장님과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오신 분들에게 미군장갑차에 억울하게 깔려죽은 미순이와 효순이 두 여중생에 대한 추모와 미국에 대한 규탄 신문광고를 즉석 모금을 통해 내자고 제안하여 211,460원이 건혀 12월 18일 한겨레신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는 모성룡 운영위원의 사회로 각 회원들의 소개시간이 있었고, 이구영 선생님, 강담 선생님, 서옥렬 선생님, 권낙기 선생님 등의 소중한 말씀과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합창하며 자리를 마쳤습니다. 더불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오신 선생님들과 어머님들께 후원회 소식 편집모임에서 제작한 ‘복녃사진달력’과 한재경 회원의 도움이 깃든 오색 찰떡세트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자리에 함께 한 많은 이들의 마음은 모두가 넉넉히 희망을 품는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진정 희망이 싹트는 복많은 새해를 모든 분께서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반미를 진짜로 부추기는 세력



● 이 그림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 기자로 일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시집 ‘흐르지 않고 고인물이’ 펴내신 신현칠 선생님

옥뜰에 한 그루 노목을 우러른다
발가벗은 웅이가지푸름 향해 벌리었다
한아름 하늘은 안고 봄 기다리고 서노라

-노목(老木) 옥중시집에서

낮을 씻을때에도
버스안에서도
아침상을 받고도
오십 가까이 얻은 아들을 안고 재물을 보면서도
팔십 노모를 바라보면서도
아내와 희롱하면서도
하나의 집념

자기 목숨이 세상에 나온데 대한 증명
살고 갔다고 하는 증표에 대한 갈망
소년시대 청년시대의 어느 날 어느 순간의
약속에 대한 배신을 거부하는 마음
자기를 지켜내려는 집념
그리고 그 밑바닥에 있는 충직한 사랑

죽음
죽을 자리를 구하는 마음
어느 형태로든
어느 범위에서든
불멸을 도둑하려는 갈망
어찌보면 슬픈 집념의 또 하루가 간다

...집념...흐르지않고...에서

비전향장기수로 24년 옥고를 치루고 1988. 11. 25 청주감호소에서 출감하신 신현칠(86세)선생님의 시조집과 시집에 있는 시 한도막씩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강직하게 세상을 살고 계시면서 분단조국을 아파하셨기에 오랜 감옥을 사시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검열이 심했던 옥중에서의 시상을 머리속에 담아두셨다가 옥중시조집 “필부(匹夫)의 상(像) 을, 62-75년 사이, 88-2001년 사이 출소하셨을 때의 가슴에서 솟아난 염원과 결의를 모아 ‘흐르지 않고 고인물이’ 를 시로써 엮어 개마서원에서 펴내게 되었습니다.

곧고 깨끗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내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집출판을 축하드립니다. 



01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주최로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가능한가'란 주제의 73주년 학생의날 기념 한총련 합법화 토론회가 열렸음. 1부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총련 매뉴얼 발간사(김인회변호사), 책요지설명(장경욱변호사), 책발간에 대한 감사인사(주지은-한총련), 2부는 강위원 집행국장 사회로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학생토론회 열림. 주지은(한총련을 대표하여)학생의 발제, 정태홍, 황해로, 김수민, 김효섭, 이경준씨 등 토론이 있었음

☞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5개 평화운동단체 공동주최하여 '북 핵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접근방법' 주제로 긴급토론회 열림. 주제발제는 '북·미 제네바 핵 합의의 이행과 위반' (이철기 동국대교수), '북 핵문제의 본질과 동북아정세' (강정구 동국대교수) 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정육식(평화네트워크), 정경란(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석광훈(녹색연합), 김승국(평통사)씨 등이 참여

☞ 영등포경찰서등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촉구 노상농성단의 자전거시위와 관련 집시범등 위반혐의로 22명을 불법장제연행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인권침해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고문치사 의혹사건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

02 의문사진상특별법개정촉구 여의도 노상농성단 자전거시위 무더기연행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항의방문,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항의서 전달. 의문사유가족들과 권낙기, 한충목, 김학철, 권오현의 함께 함

☞ 영등포역광장에서 '미군 장갑차 고 신희순, 심미선 살인사건 학생대책위원회(가)' 주최로 '부시사과 재판권환수 미군 살인훈련중단 전국대학생 4차 행동의날' 집회열림. 1000여명 학생들은 집회를 마치고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까지 행진

☞ 한나라당사 앞에서 미군장갑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8차 범국민대회' 열다. 집회를 마치고 영등포역까지 거리행진

☞ 양심수후원회, 김대원대책위, 국보폐지국민연대등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전원석방 토요캠페인 벌임 - 김미성, 박지윤, 변의숙, 김범용, 김숙희, 고광희, 이창희, 권오현 함께 함

03 69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대표로서 사법처형당했던 권재혁 선생의 33주기를 맞아 서대문 독립공원 사형장에서 '고 권재혁선생 33주기 추도식' 이 당시 함께 투옥되었거나 연루되었던 김병권, 이일재, 노중선 선생님을 비롯 많은 사회단체 대표 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음. 이종린, 김영규, 김병권, 이일재 선생님들의 추모말씀과 분향제배가 있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사회당 젊은 일꾼들이 많이 참석했음

☞ 낙성대 '만남의 집' 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팀이 주관하는 한상권교수(후원회 운영위원)의 현대사강좌 '모스크바 3상회의 결과와 신탁통치 찬반논쟁' 주제의 제 10강이 있었음. 강의가 있기전 관련현대사 비디오 감상이 있었으며 이 강좌 참석회원들을 위해 한재경 회원께서 맛있는 찹쌀떡을 한 상자 보내주셨음. 마치고 뒷풀이로 이어지면서 현대사강좌는 계속되었음

☞ 청송감호소에서 피감자 400여명이 가출소, 기준완화, 근로보상금 인상등을 요구하며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지다. 청송감호소에서의 단식농성은 지난 5월, 10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청주감호소에서 출감한 장은석씨는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도 재범우려만으로 7년을 더 감호처분하는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악법이라며 이 법의 철폐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함

☞ 마포경찰서는 공무원노조 관련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로 이용한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신청

04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

문사진상규명특별법개정 134개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권오현 여는말, 주종환, 김인회, 최인순, 허영춘 촉구발언, 박경순 민가협 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뉴스 창간 2주년 기념토론회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 주제로 열림. 노중선선생 사회로 발제 ①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김남식) ②6·15공동선언의 의미와 향후이행전망(이부영) ③6·15공동선언 이후 민간교류의 현황과 과제(이철기)등이 있었고 상호토론과 방청석 질의응답이 있었음. 마치고 식사를 하며 창간2돌 축하행사. 김낙중, 권오현등 축하말 있었음

☞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과 회원들, 그리고 김대원대책위 성원들 전주지방검찰청 방문. 김대원 담당검사 만나 전주교도소장이 신청한 김대원씨의 형집행정지를 기각하고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낸 것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석방·치료케할 것을 촉구

☞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책임을 지고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다. 이 사표는 5일 수리될 것으로 알려짐

☞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공무원조합법안' 폐지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사상 첫 공무원 연가파업을 단행 - 파업공무원들은 한양대에 집결, 공무원노동자대회 전야제를 열고 있었으나 2000여명 경찰병력이 참가공무원 전원을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름. 한편 경실련, 민변등 64개 시민사회단체의 '공직·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노조 기본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고 구속공무원노조원을 석방하라' 요구

05 미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100만들과 전국대표자 기자회견'과 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제지로

몸싸움만 하다 해산

☞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진상규명위 활동연장과 조사권강화의 필요성에 의견모으고 법무부와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자료를 요청

06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자회의' 열리다. 회의에서는 미 군사법정대항투쟁, 백악관농성투쟁, 대선시기투쟁, 재정문제등 심의결의했음

☞ 민중연대 사무실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17차 대표자회의 열림. 대표자회의에서는 현황보고에 이어 경제특구 법안 국회상임위 상정에 따른 대응등 협의

☞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혜중판사는 전교조 조합원 박아무개, 보건의료노조 차아무개 위원장등이 '부당한 알몸수색으로 피해를 입었다'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00~2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07 민가협 447회 목요일집회 - 김대원, 이창호씨등 재소자 건강권과 인권문제.

☞ 강남성모병원으로 고봉희 할머니 문병. 온몸이 붓고 호흡곤란, 말썽못하심. 그러나 알아보시는 듯 눈으로 인사하심. 이 문병이 할머니 마지막 뵈게되는 것이었음. 할머니께서는 8일 새벽에 한 많은 세상을 떠나셨음

☞ 양심수후원회는 김대원씨 형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전주지검과 청와대등에 즉각 석방하여 치료받게 하라는 항의문 보내다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시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노상농성을 하고 있는 의문사 유족들은 '권한강화가 없는 기간연장은 반대한다'고 법개정을 지지하기로 함

☞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혜중판사는 부평 대우자동차 노조원 김아무개씨등 12명이 '강제연행과 감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00~7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 - 한편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홍렬 판사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된 참여연대 최한수간사에게 '국가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내림 - 시위와 집회를 불법방해하고 연행행위에 썩기를 박았음

08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석방법국민대책위원회 발족. 사회지도급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다. 정진우목사님 사회로 이종린의장의 여는말, 한충목집행위원장 경과보고, 1000인 선언 발표(권오현 공동대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글(오종렬 공동대표), 강병식 전상봉의장 부인의 사례 발표등으로 이어짐.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

미대사관 앞에서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주최로 '체네바협정 폐기운운 대북압박, 한반도 긴장고조,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취지설명 홍근수, 규탄발언 권오창, 권오현, 기자회견문 낭독 한상렬 순서로 진행

대검찰청앞에서 98년 한총련 방북대표 김대원 치료 및 석방을 위한 대책위 주최로 '김대원대표의 형집행정지 불허규탄 및 석방촉구 기자회견' 열다. 이상훈 사회로 기자회견문 낭독 권오현, 규탄발언 임기란 전 민가협상임의장순으로 진행. 마치고 항의서한 대검찰청에 전달하다

교대역에서 덕성여대 박명주씨 석방대책위 주최로 '박명주씨 무죄석방촉구 거리캠페인' 벌임. 덕성여대 학생들과 권오현 대책위대표등 석방촉구연설

강남 성모병원 장례예식장으로 고 고봉희할머니 빈소 문상하다. 양심수후원회와 민가협, 통일광장,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등 11개 단체 공동으로 부고 광고 내기도 하다. 양심수후원회 조의화환을 보내다. 이정규, 김호현, 이정태, 김혜순, 모지희, 송금숙, 송창학, 박지윤, 김숙희, 고광희, 이승미, 변의숙, 장재영, 노혁, 김미성, 이득형, 양계숙, 이창희,

권오현등 함께.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김대중대통령 정권에서도 인권신장없다며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 폐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제시

09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집행부주례 모임 - 후원회소식 133호 발간진행점검,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국가보안법장례식 연대사업문제, 고봉희할머니장례문제, 그 외 보고, 결산관계 등

탑골공원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토요일 캠페인 벌임. 송창학, 고광희, 김숙희, 이창희, 권오현, 국보폐지국민연대간사. 마치고 성모병원으로 고봉희할머니 빈소에 가다. 이진, 박지윤회원들 8일부터 일손 보태어드림

10 고 고봉희여사님, 가족장으로 치루어지다. 아침 7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에서 발인제 - 별도로 통일광장, 범민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사회단체 성원들 함께 한 가운데 권낙기선생 진행으로 권오현, 임방규선생 조사와 북에서 보낸 조사낭독등 있던 다음 장지인 부안으로 떠남 - 부안군 장지에서는 천주교식 하관식이 있던 다음 서울, 전주, 광주, 대구, 부산등에서 오신 통일광장 여러 선생님들과 전북도내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권오현 진행으로 최상원, 류락진선생의 조사와 추모노래 등으로 이어졌음. 고봉희할머니는 먼저 별세하신 부군과 함께 모시게 되었음. 이정태, 양계숙, 권오현 다녀오다

민주노총등이 주최한 '2002년 노동자대회'가 대학로에서 25,000여 노동자와 시민, 학생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제특구법, 주5일제 빙자한 노동법 개정안, 공무원조합법등 3대악법반대등 기치아래 대회를 열고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 - 이보다 앞서 9일 밤에는 경희대에서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있었음

11 프레스센터에서 민변 주최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이 10~18시까지 열렸음. 김선수 민변총무

사회로 최병모회장 등의 인사에 이어 세션① - 이원형변호사 사회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에서는 김도형(노동), 정연순(여성), 하승수(지방자치), 이은우(정보통신)변호사등이 발제하고 유덕상(민주노총), 남윤인순(여연), 김윤주(군포시장), 이인호(중대법대교수)등이 토론했으며 세션② - 강금실변호사 사회로 ‘한국사회의 쟁점’에서는 국가보안법등(박승헌변호사, SOFA(이정희)), 정치관계(이석연), 형사절차(김갑배)등 발제와 민주노동당, 민주당, 한나라당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책임자가 토론자로 나섬 세션③ - 임종인변호사 사회로 ‘한국사회의 개혁’에서는 개혁법률(윤기원변호사), 반부패(장유식), 서민생활(김남근), 사회복지(이찬진)등 발제에 유현(국가인권위), 김준곤(의문사진상규명위), 허활석(민주화보상심의위), 홍현선(부패방지위)씨등이 토론에 함께 했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민연련이 주최한 조선일보토론회 ‘한반도위기와 조선일보’ 주제로 열림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사회단체 대표가 함께하는 ‘전국농민대회지지 및 평화적개최보장 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이 열렸음

☞ 1970~80년대 군사독재시대 반독재 선전문건들을 인쇄해 왔던 세진인쇄 강은기님이 취재압으로 6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심. 3·1시국선언문등 인쇄 혐의로 보안사, 안기부등에 끌려다녔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으로 3년선고에 1년 1개월 옥고를 치루기도 했었음. 빈소는 보라매병원 영안실이었고 11일 발인, 마석모란공원묘지에 묻히심. 삼가명복을 빕니다

12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용산운동본부, 미군기지만환운동본부, 매항리범대위등 공동주최로 ‘여중생사건 미군재판중단촉구 및 서경원 전의원 폭행, 재판권 포기, 법무부규탄 제38차 미 대사관앞 반미연합집회’ 열다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 심

리로 한청 간부 2차공판이 열리다. 검사의 직접심문과 변호사의 반대심문 과정에서 전상봉, 정대일, 이승호씨등 한청간부들은 공소내용을 부인하고 한청활동의 정당성을 주장, 마치고 법원 계단에서 정리집회. 오종렬, 권오현등 규탄발언

☞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에서 집행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하던 최중수신부님이 지난 해 캐나다로 가서 교포 사목으로 있다가 지난 달 15일 일시귀국, 오늘 시집 ‘지독한 갈증’을 펴낸 출판기념모임을 정동 프란치스코홀에서 가졌습니다. 최신부님은 신학생때부터 수유리 ‘만남의집’ 등에 와서 이종(송환)선생님등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께 극진한 보살핌을 해주셨고 1996년 사제서품을 받아 김재 수류성당 주임신부를 맡기도 했습니다. ‘불평등한소과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최신부님은 특히 매항리폭격장, 미군기지촌, 노동자들의 농성장등을 자주 찾았고 시로써 형상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뒤 최신부님께서 양심수에게 보내달라며 1,000,000원과 시집을 양심수후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지금 캐나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13 서울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쌀수입개방반대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지지를 촉구하는 “우리 쌀 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전국에서 온 150,000여명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음. 농민들은 2004년 세계무역기구 쌀 재협상때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및 최소시장 접근물량확대, 식량자급계획수립,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거부, 농업협상 농림부 이관 및 농민대표 참가보장, 농가부채해결, 농가소득보장, 재해대책마련, 쌀값보장 특별대책수립 등 8가지 요구안을 정부 및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음. 이날 행사장에는 권영길, 노무현, 정몽준 대선후보들이 나와 농업정책등을 설명했음.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여의도 시민공원까지 행진을 하고 해산했음

☞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전태일기념사업회 주최로

전태일열사 32주기 추도식이 이소선여사등 유족들과 노동·사회단체 성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음

14 전남 해남군 해남종합병원 영안실로 김남주시인의 모친이신 고 문일입여사 빈소 문상하다. 고인은 12일 오후 6시 노환으로 별세하시었고 14일 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평소 생활하시던 삼산면 봉학리 가족묘지에 묻히셨음. 고 김남주시인은 남민전사건으로 9년여 옥고를 치루고 출소했으나 채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김시인과 함께 활동했던 옛 동지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음. 하관식이 있는 다음 민인기씨 사회로 정광훈 전국연합공동의장(전 농민회장), 권오현(남민전동지)의 조사가 있었음. 서울에서 김영옥(남민전동지), 노수희, 이규재, 흥번, 권오현이 함께 했음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형주 한총련 10기의장과 한총련 간부 윤민호씨 면회하다. 김형주 의장은 오는 18일 1심선고공판을 앞두고 있고 윤민호씨는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아 항소중에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건강했고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후원회원들에 안부 전해달라했음. 김영옥, 권오현 따로 면회.

민가협 448회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종로5가 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KNCC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연맹등 공동주최로 '한청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목요일기도회'가 열림. 정진우목사님 사회로 진행과 목요일기도회는 나해집목사님의 한청지도부 즉각석방, 이적규정응모중지, 국가보안법철폐 등 촉구설교가 있었음

15 용산 미8군 정문앞에서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살인미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만적 재판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김종일집행위원장 경과보고, 권오현 규탄발언, 오종렬 기자회견문낭독등으로 이어졌음

용산 미8군앞에서 서울연합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등 사회단체 공동으로 주한미군범죄규탄, 미군철수등 금요일집회를 열다.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

장의 여는말, 권오현등 미군범죄와 주한미군철수촉구발언 등으로 진행

민주당 노무현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후보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객관적 방법으로 일반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한다'는데 합의

소식지 발송작업을 이창희, 고광희, 김숙희, 김미성, 박지윤 등이 함께 함

16 양심수후원회 집행부주례모임 인사동에서 열다. 송년모임 등 논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2002송년모임 장소 '새서울주물럭' 예약(2002. 12. 15. 12시)

한청 조통위원장 이승호씨 오늘 보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하다. 구치소앞에서 한청회원들과 범민련,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등 사회단체 성원들 마중하다. 이상규 비상대책위원장 사회로 이종린, 임방규, 권오현의 한청가입단체 대표들 환영인사말과 이승호위원장의 답사, 그리고 가족들 인사가 있었음. 마치고 구치소를 향해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을 외치다

소식지 발송(국내 1,188통, 국제 18통)을 함

양심수후원회 매오로시팀에서 인천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에게 문병다녀왔음.

17 부산 민주공원 공연장에서 범남본 부산·경남연합주최 남도열사추모사업회와 청년통일광장이 주관하는 제5회 남도열사추모제가 열렸음. 식전행사는 풍물패공연과 노래극단 희망새공연에 이어 참가자 소개가 있던 다음 제사에 들어가 최상원선생님의 헌작과 추도사, 이어 하태연, 박순자, 민경옥선생등 유족들의 헌작, 이어 송기인신부(민주공원 이사장)님의 추도사, 김영승(통일광장), 권오현(양심수후원회), 서상권(범남본 부산·경남의장), 부경총련의장등 추도사가 있었음. 이 남도열사추모제에는 광주, 서울, 대구, 부산, 경남 산청등에서 활동했던 옛 동지들이 함께 했고 부산지역 청년학생들이 함께 했음

양심수후원회 11월 산행을 다녀옴. 우이동 그린과

크에서 만나 도봉산으로 해서 '안방'을 다녀옴. 눈과 비가 내려 일찍 산행을 마침. 뒷풀이로 쌍문동에 있는 백두산 찜질방에 다녀옴. 류기진, 송세영, 김수룡, 변숙현, 이득형, 양계숙, 신현익, 한수정, 송창학, 이창희, 변의숙 등이 함께 함.

18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선재성부장판사)는 김형주 한총련 10기의장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가입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재판부는 이북이 국가로서는 반국가단체가 아니지만 이 나라를 움직이는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북한공산집단은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반국가단체이기에 국가보안법은 국가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함. 한총련이 강령·규약등을 개정했고 주의·주장·구호가 온건한 것은 인정하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전술적조치라며 정치·사상적으로 종전과 다름없고 반미자주화 주장등 북의 노선을 추종하기에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의견을 말함. 재판장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죽은 모습으로 선고하며 '법률적으로는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입니다'라는 의미있는 말을 남기고 퇴정하다. 방청했던 남총련 주최로 법원정문 앞에서 재판결과에 대한 규탄집회를 열다. 김형주의 장부친 인사말, 권오현, 강위원 규탄발언등. 마치고 이상갑변호사만나 그동안 재판진행과정과 변론에 감사인사하다. 오늘 재판에는 강위원, 이창희간사, 정형근, 김범용, 권오현등 범사회인대책위에서 방청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미군(페르난도 니노)의 재판이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다. 여중생살인사건범국민대책위에서는 미군 당국의 재판이 부당하기에 미2사단앞에서 '미군재판저지 살인미군체포 1차총력투쟁대회'를 열다. 대책위에서는 피고도, 검사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배심원도 미군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형식적 재판놀음을 규탄하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등이 성조기를 태우기도 했음

20 프레스센터 컨퍼런스홀에서 6·15공동선언이행과 진보정치실현을 위한 대선헌선단 주최로 '범진보진영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열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후보를 초청하여 김성진(인천연합의장)사회로 한충목, 강병기, 이재현, 박세길씨등 토론자로 나섬. 김영옥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①6·15실천단의 투쟁과제 실현방법 ②통합진보정당 건설 전망 ②노·농연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론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및 불교인권상 수상식이 열림. 올해 불교인권상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위원장에게 주어졌고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차위원장대신 남편이 받음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미군(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에게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이 내려지다. 주한 미8군 군사법원 배심원은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놀음에서 배심원단 7명의 합의로 무죄를 평결하여 이른바 미국형사재판결과에 따라 검사가 항고조차 할 수 없게 되다. 살인자들의 기만재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야만행위였음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김덕수총리 주재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희생자 심사소위 심의를 통과한 1801명에 대한 희생자지정 여부를 논의하여 1715명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림

홈페이지관리모임이 오후 7시 신촌 독수리다방에서 열림. 장재영, 이득형, 양계숙, 김기홍, 박지윤, 고광희 등이 함께 하여 홈페이지 운영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함. 이창희, 이일규, 김숙희, 김미성 등은 참관함.

21 민가협 44회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살인미군의 무죄평결을 항의하고마크 위커의 재판놀음을 저지하려는 동두천 미2사단앞에서의 '미군재판저지 살인미군체포 2차총력투쟁대회'를 열다. 대회는 문정현, 이종린, 문대골, 한상렬, 윤한탁, 홍

근수, 이천재 대표등과 수많은 청년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하여 결의의식과 기자회견을 열었음. 미군재판놀음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진격하려다 김준기대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경찰과 충돌, 부상을 당해 병원에 실려갔음. 여중생들까지 혈서를 쓰고 문정현신부, 한상렬목사는 식발투쟁을 하다

☞ 시사모임이 낙성대 '사카' 에서 열림. 송창학, 이창희, 이진, 한수정 등이 함께 하여 '인권의 역사' 공부를 마치고, 역사강좌 준비에 대해 논의함.

22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현부장판사)는 이른바 민혁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심리와 결심을 마친 이석기씨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동두천 미2사단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미군(장갑차 운전병) 마크 워커 재판저지투쟁을 벌임. 범대위 주최로 아침부터 법정으로 진격투쟁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 부상자가 속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실려갔다. 동두천 천주교회에서 마련한 점심식사를 현장에서 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잇달아 진행. 문정현, 홍근수, 이관복, 진관, 권오현등이 규탄연설을 하다. 밤8시가 지나 워커병장마저 무죄평결되었다는 소문이 나는 가운데 시위자들은 수백개의 달걀을 미군 영내로 던지는 시위를 계속했고 밤9시 정리 집회를 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해산

☞ 주한 미8군 군사법원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미군사법정에서 미군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살인미군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에게도 배심원 무죄평결이 밤9시에 내려져 니노병장과 함께 군검찰의 항고조차 못하게 되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자존심을 짓밟은 이 사기극은 반드시 저들에게 몇십배로 되돌려주어야 할 것임

☞ 유기진 선생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어 위암 초기진단이 나와 12/2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12/5일 문병을 다녀왔는데 걸어다니실 정도로 건강이 좋아보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2/10일 퇴원하시어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23 용산 미8군앞에서 청소년행동의날 집회에 이어 범대위 주최로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 미군무죄판결 규탄집회'를 2,5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마치고 미8군 정문으로 진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몸싸움 끝에 해산

☞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전원석방 토요캠페인이 탑골공원앞에서 열림. 특히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어진 김대원 방북대표 석방과 한청간부 이적음모 중단등을 대책위 성원들이 주장. 이날 MBC에서 캠페인과 서명운동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도 했음. 고광희, 이창희, 송창학, 이승미, 변의숙, 김민정, 안나미, 양계숙, 김미성, 박지윤, 김호, 이용준, 권오현 함께 함

☞ 건국대학교 학생식당에서 김대원, 황선, 김혜신, 공은희, 박명주학생등 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리다. 민가협 어머님들과 함께 참석. 격려말하다(권오현)

24 반외세·반과소투쟁에 헌신하다 남민전 사건으로 옥사한 고 이재문선생 21주기를 맞아 옛 동지들과 사회단체 성원들이 모인 가운데 인천시 백석동 천주교공원묘역 고인의 묘소에서 '고 중덕 이재문선생 제21주기 추모식'이 있었음. 박석삼씨의 약력소개, 홍세화씨의 추모시낭송, 고 김남주시인의 육성시낭송, 전창일선생의 추도사와 결의의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하고 유족들과 손님들의 분향제배로 마쳤음

☞ 홍익대학교 휴게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후원회 제2차 정기총회가 후원회원들과 범민련,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 민자통, 민가협, 유가협, 청년단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열림.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사업평가, 결산승인, 임원선출(공동대표 김승훈, 명진, 이규재), 2003년 사업계획승인, 결의문채택 순으로 진행

☞ 홍익대 체육관에서 범민련 결성 12돌 기념대회가 열림. 이상규 한청 비상대책위원장 사회로 사전문제

공연, 남측본부대회사(이종린의장), 북측·해외본부대회사(유성태의장, 영상), 공동사무국축사(김규철의장 대독)가 있었고 오종렬 전국연합상임의장의 축사도 있었음. 이어 한총련대표의 정치연설, 우리나라의 문화공연과 신창균명예의장의 만세3창으로 기념식이 끝나고 이어 12월 기념 문화공연이 있었음

25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국가보안법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규정음모’ 주제로 토론회 열리다.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상규 한청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제문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부당’에 이어 김승교, 오창익, 정대화, 김세창, 송영길등이 토론

☞ 민주노총 대표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회의 열다. 오종렬, 조찬배, 유덕상, 권오현대표와 한총목집행위원장, 이은경사무처장 함께. 권오현 사회로 ①보상심의위 관련자분과 구성 관련 김상근위원장 면담건 ②명예회복법 개정지연에 따른 대응방침 ③민주공원 추진현황에 대한 공유 및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 등 협의

☞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고 발표. 양측은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서치 앤드 리서치사 조사결과 노무현 후보 46.8%, 정몽준 후보 42.2%를 얻었다고 발표했음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를 지정하고 13일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채택했다고 관영〈평양방송〉이 보도했다고 보도되었다. 정령에서는 기존 금강산 관광지역 이외에 ‘통천군 일부’ 시중호, 총석정, 동정호등이 있는 곳까지 넓히게 된 것으로 보도됐고 외부 투자자들은 관광지구안에 여행, 숙박, 오락, 편의시설과 정보기술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 승인, 등록, 영업허가등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관리기관이 받도록 했음

☞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 1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세종로 KT건물앞에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규탄 및 소과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 대사관에 항의하러 진격하다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다

☞ 학생들이 아침 7시 30분경 대방전철역 앞에서 미군 캠프 그레이 325번 게이트에 화염병 40여개를 던지고 사라지다. 이들은 선전물에서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대학생이라고 밝혔음

26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부장판사) 심리로 한청 전상봉의장등 3차공판이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치 않아 연기

☞ 검찰청 앞에서 한총련과 한총련합법화범사회인대책위 공동으로 ‘6·15공동선언 역행하는 한총련 이적단체 재판결 법원·검찰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련 학생 사회로 범민련 서울시연합의장 김규철, 한청 비대위원장 이상규씨의 규탄발언, 덕성여대 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권오현 비대위 상임대표의 범사회인대책위 항의서한 낭독순서로 진행하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등 1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들은 느티나무 카페에서 ‘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음.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외국자본에 무제한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와 사회·환경적 권리를 말살하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음

☞ 50여명의 한총련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의정부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기지안에 기습진입, 시위를 벌임. 학생들은 서로 쇠사슬로 묶고 살인미군 재판무효등을 외치며 기지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미군과 경찰에 강제연행. 고양, 남양주, 일산, 포천 경찰서에 각 10명씩, 의정부경찰서에 13명이 구금상태로 있음(남학생 34명, 여학생 19명)

☞ 소식지 편집모임이 인사동 만복정에서 오후 7시 30

분에 모임을 가짐. 유병문, 문숙희, 김현희, 박정범, 이승미, 이창희 등이 참석하여 '후원회소식'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할 일을 논의함. 하재광, 변의숙, 박지윤 등 참관.

27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무죄재판 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 소파개정! 제시민·사회단체, 정당 대표자 비상시국회의' 열림. 경과보고에 이어 안건으로 시국선언문 채택. 범국민 10대 행동지침 채택, 향후 주요 공동사업등 협의

☞ 용산 미8군앞에서 '무죄재판 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 소파개정 촉구 결의대회'가 비상시국회의 주관으로 열림. 홍근수대표의 대회사, 오종렬 의장의 선언문낭독등이 있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규탄발언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으로 살인미군 무죄결전 전면무효, 불평등한 소파개정 노동자결의대회 열렸음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을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해 오늘 공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이번 조치로 25일 '금강산 관광지구법', 26일 비무장지대 동해선 철도·도로 공동측량에 이어 남북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 보도에 따르면 이북 관영(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13일 정령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고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공업지구 관리 책임자'를 남쪽인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음

☞ 조지 부시는 미군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 가족과 한국인, 한국정부에 사과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가 리언 러포트 주한 미군사령관과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힘. 한편 미군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위커는 오늘 오후 평택시 케이-55기지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됨

☞ 제16대 대통령선거운동이 후보등록을 마침으로 들

어가다. 오늘까지 권영길(민주노동당), 노무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김영규(사회당), 이한동(한나라국민연합), 김길수(호국당), 장세동(무소속) 등이 후보등록을 마침

28 의정부 미2사단 캠프 레드 클라우드 기지안에 들어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을 규탄시위하다 의정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한총련과 민주노동당 학생당원들 16명을 면회하고 즉각석방 촉구하다. 처음에는 의정부경찰서에 13명만 연행되었으나 27일 3명이 다른 경찰서에 이송되어 왔었음. 바로 미군기지 진입주모자로 몰기 위해서였음. 16명은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했고 당당했음. 이들 가운데 한총련 대의원 1명은 보안수사대로 넘길 것으로 보이며 3명은 영장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짐. 이날 오후 53명 가운데 49명이 불구속입건으로 풀려나고 1명은 보안수사대로, 3명은 영장이 신청되었음. 밤늦게 이들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에게 그 부당성을 말하고 선처를 요망하는 진정서 보내다(이종린, 오종렬, 권오현). 의정부경찰서 면회에는 김진숙, 노수희, 진관, 이관복, 한상렬, 권오현 함께 함

☞ 민가협 450회 목요일집회가 있었습니다

☞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오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일병은 자살했다'는 최종조사결과를 발표 - 의문사진상규명위 발표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살하는 사람이 탄띠를 스스로 풀고 다시 총을 쏘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

☞ 아현동 민족문화작가회의 사무실에서 문인들은 '주한미군 범죄의 무죄평결에 대한 문학인 1052인의 성명서'를 발표

☞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재판관)는 국가보안법 13조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서울지법 위헌제청사건에서 반국가범죄는 처벌받는 사람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3조(특수가중)는 위헌이라

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54차 회의를 열고 보상확정자 74명에게 모두 60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사망자 46명, 상이자 28명에게 930만원에서 2억 3천만원씩 지급되게 됨.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국가보안법장래준비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제정54년에 즈음한 국가보안법사망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장래위원회 조직위원장 사회로 이종린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의 인사말, 한총련 외국어대 유복재 학생회장의 피해사례발표,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권오현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의 폐지촉구문 낭독, 국가보안법 사망진단서 발표(인의협-대독 정진우목사), 성유보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등이 있었음

☞ 인천 나사렛한방병원으로 정순덕선생님 문병 다녀왔습니다. 뇌혈전 증상에 따른 마비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일반건강은 좋으셨습니다. 눈에 백내장이 있으나 안경쓰고 책을 읽을 정도는 되어 추위가 풀린 뒤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빨리 운동을 열심히 하시어 마비증상에서 벗어나게 되길 빌고 있습니다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전봉민 영장담당판사는 여중생살인미군 무죄평결에 항의 미군부대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군사시설보호법등 위반)이 신청된 노아무개씨 등에 대해 '행위동기가 참작할 면이 있고 부대진입전후 평화적이었음'을 들어 영장신청을 기각

30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총련, 민노당학생위원회, 기독교학생회등 대학생단체 공동으로 '살인미군 한국법정처벌, 전쟁반대, WTO교육개방저지, 청년학생총력투쟁대회'가 열린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중생 살인미군 무죄평결에 분노하고 투쟁결의를 보이는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경기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한총련 학생들의 삭발투쟁도 있었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생총력투쟁대회에 이

어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주최로 '2002년 전국민중대회'가 열려 WTO 쌀수입반대, 경제특구법폐기, 국가보안법폐지, SOFA개정 등 민중 10대요구사항을 결의하다. 한충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전 전농회장의 대회사, 전농, 전빈련, 민주택시연맹, 공무원노조, 보건 의료노조, 철도노조, 한청, 한총련 대표들이 각 부문별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연설을 했고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아버지들의 소감발언도 있었음. 대회에서는 꽃다지, 우리나라 등 문화공연에 이어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이 읽은 2002 전국민중대회 투쟁결의문을 채택했음. 대회를 마친 다음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다

☞ 민중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경찰체제를 뚫고 종로 2가까지 행진. 2000여명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던 시민들과 합류, 5000여명으로 늘어 광화문 4거리를 87년 6월항쟁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행진할 수 있었음. 이 자리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개혁적국민정당대표도 함께 하다

☞ 국가보안법철폐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토요캠페인을 양심수후원회, 김대원대책위, 한청비상대책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공동으로 벌이다. 캠페인을 마친 양심수후원회원들 민중대회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까지 촛불시위에 함께 하다. 박지윤, 김민정, 김현희, 고광희, 김범용, 이창희, 이용준, 한상권교수 함께 함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신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시에서 문병을 다녀옴.

☞ 영치금을 양심수 80명에게 보냄.

☞ '말'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들에게 보냄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양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

☞ 정순덕선생님에게 간병비를 보냄

☞ 최종수 신부님 시집을 모든 양심수들에게 보냄.